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8월 28일 (제86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자신에게 인색한 자여!

천하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인색한 자다. 자신에게 인색한 자는 곧 자신을 확대하는 자다. 간과 폐가 싫다는데 술, 담배에 젖어 사는 자들. 간과 심장, 피가 싫다는데 과로하며 나쁜 짓만 골라하는 자들. 위장이 싫다는데 해로운 것만 골라 먹고 과식하는 자들. 눈, 귀, 머리가 싫다고 경고하는데 스마트폰, 인터넷에 파묻혀 사는 자들. 음주운전하면 죽는 줄 알면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자들,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만 하는 자들... 다들 자신에게 인색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몸은 적색신호를 보내지만 모두 이를 무시한다. 이렇듯 경고를 무시하니 경고도 너를 무시하여 이젠 갈라서겠다. '더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며 병과 죽음을 던져주고, 미련 없이 눈물로 가족과 이별하게 하더라. 자산이 100억 가량 되는 성도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어 입원했다고 해서 심방을 갔는데, 그는 6인용 병실 한 쪽 구석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에게 1인실로 가서 좀 편히 있으라고 했다. 있는 돈 뭣다 뭐할 거냐고. 그런데도 그는 기어이 6인실을 고집했다. 그러다 그는 병이 더 악화되어 세상을 뜨고 말았다. 6인실 구석에서. 지혜로운 자는 내 몸을 살피는 자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자다. 몸이 아프다고 하걸랑 쉬고 치료하라. 먹고 싶다 하걸랑 먹어라. 해롭다고 하걸랑 그것을 끊어라. 같은 차라도 관리하기에 따라 수명이 다르듯, 우리의 육체도 관리하기 나름 아니겠는가. 믿는 사람들은 영을 더 귀히 여기고 육을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맞다. 영이 더욱 귀하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가. 육이 있어야 하늘에 상을 쌓고, 면류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온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어리석은 자여, 천하보다 귀한 것이 네 육체라고(마16:26).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뜨거운 한 여름을 4주간 기도원에서 보내며, 목사님은 매 시간 혼신을 다해 모든 진액을 쏟아내셨다. 뿐만 아니라 단에 서는 종들, 간증자들, 찬양으로, 악기로, 자막으로, 교사로, 식당에서, 호텔숙소에서 봉사하며,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각종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봉사한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원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음향과 영상으로 수고한 직원들, 이 지면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또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

2013년, 한반도의 핵 위기 앞에 모두가 잠잠할 때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를 위해 기도의 봉합불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부천을 시작으로 잠실, 서울시청광장, 대구, 올림픽공원으로 이어졌고, 2016년 올해, 우리는 다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서 남북 평화통일의 역사를 이어가려 한다. 어쩌면 우리 교단 앞에 펼쳐진 새로운 30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준 이 사명, 곧 한반도 평화통일의 역사,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역사, 바랄 수 없는 믿

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난 30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길을 함께 달려왔다. 목사님 말씀처럼, 물 없는 사막과 눈 덮인 산야를 함께 넘고 건너왔다.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 천국의 축복이 빛나고 있음을 믿고, 아니 더 나아가 그 나라 열 고을의 왕권을 꿈꾸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믿음의 길을 '오직 예수'를 외치며 앞서 가시는 목사님을 따라 달려왔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오하는 것은 이전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 제6차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릴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주실 줄 믿는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준 사명은 우리로 지난 영광에 취해 멈추어 있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청소년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 4주간의 대미를 장식하는 지난 18일 마지막 저녁집회에서 오는 10월 3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제6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하셨다. 보통 4주간의 땀뻘한 일정을 마쳤으면 약간의 휴식을 꿈꿔볼 만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다는 금지와 자부심으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음의 실상을 이루는 시간이 될지 모른다. 아니 진실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실에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단이 쏘아올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의 봉합불이 모든 교과 및 종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천 년 이어온 이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목사님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주의 길을 가리'의 가사 요약이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

의 모든 노력들, 땀과 눈물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물러설 수도 없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든지 말든지, 개가 짖든지 말든지 우리의 천국행 열차는 멈출 수 없다. 잠들기도 어려운 한 여름을 지나지만, 4주간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튼튼한 영적 체력을 키웠으리라 믿는다. 다시 힘을 모으자. 다시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한편의 명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서울시청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역사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다시 써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천군천사도 우리를 돕는다. 우리 가는 이 길에 오직 주의 영광 있기를. 아멘!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월 3일 오후 3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1:14~18)

예수님께는 핑계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2012년 9월에 창설된 JC 아카데미의 슬로건은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든, 모든 원인 역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핑계와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수단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누가 댈니까? 실패자들이나 실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누구 때문에’, ‘뭘 때문에’ 하는 것이니 추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핑계 대는 자, 변명하는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은 제 앞에서 일체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장로들과 골프를 치는데, 한 장로가 공이 잘 안 맞으니까 “아휴, 옆에서 떠드니까 공이 잘 안 맞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봐, 핑계대지 마. 실력이 없어서 안 맞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자신을 탓해야지, 왜 남을 탓합니까? 이처럼 저에게도 핑계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처음 핑계를 댄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에덴동산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으셨고, 다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를 추궁하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 탓이고, 더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원하면 매사 최선을 다하라

핑계와 변명의 대표주자는 누가 뭐래도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15:20~21). 백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엄연히 제사장 직분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무엘이 어찌이냐고 묻자 그

는 구구절절 변명하기 바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흠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삼상13:11~12).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만하지 않습니까(삼상15:11)?

아론의 경우도 볼까요? 모세가 시온산에 오르고 소식이 없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장식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하산한 모세가 이에 대해 진노하자 그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출32:22~24). 하나님 앞에 핑계나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핑계 반, 변명 반 늘어놓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출4:10). 계속 모세가 변명하자 하나님이 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4:12)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핑계와 변명하는 자를 어

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5 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

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

어 두었었나이다”(마25:24~25). 그러자 주인이 어찌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마25:26~30)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 장에는 므나로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므나를 그대로 내놓은 자에게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눅19:27)고 하셨습니다. 핑계와 변명하는 자를 ‘악한 자’, ‘원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핑계나 변명이 안 통한다’고 못 박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 중의 하나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가 나빠서’, ‘배운 게 없어서’, ‘못 생겨서’,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을 다 갖춰서 성공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대에 대기업을 일군 고(故) 정주영 회장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인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몸이 약했고, 지

리리 가난했으며,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핑계가 무용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고아라서 힘들다고요? 그럼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서자로 태어나서 안 된다고요? 그럼 입다는 누구이고, 과부라 안 된다면 롯은 누구입니까? 이초석 목사가 이단 소리를 들어서 지교회가 부흥을 못한다면 성공한 지교회는 됩니까?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면 두바이의 건설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나 핑계와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수단이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 곁에 가려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충분한 핑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뚫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핑계나 변명 뒤에는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왜 하나님만 원망하고 탓합니까? 하나님을 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내 가계가 안 되는 것, 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발전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3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쓰인 사람들처럼 ‘나는 발을 사서’, ‘나는 결혼을 해서’,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시험해야 해서’라고 핑계대고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악한 자’, ‘원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핑계를 버리고 동참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물질을,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는 안 통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안 통하니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자의 주머니에는 핑계와 변명이 있고, 성공자의 주머니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말고 결심하라”(눅21:14). 할렐루야!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단 한순간이라도 위기 상황이 없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역사상 931회의 외침을 받았고,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비극 6·25동란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였으며, 미군부대 잔밥통에서 나오는 음식을 드럼통에 넣고 끓인 ‘꿀꿀이죽’으로 주린 배를 채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고 세계 117개국 중에서 끝에서 여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조국 근대화 사업이 시작될 때,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힘찬 노랫가락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지극 지극한 가난을 몰아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대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냄으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 목표는 정말 꿈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7,970달러를 달성하였고, 무역 총액은 2011년 말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전 세계에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

니다. 이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8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금 모으기’를 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19년 만에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정회원국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뜬히 이겨내고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기는 국내외의 급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만연한 패배주의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근대사를 부인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기 힘들고 희망조차 없는 지옥과 같은 사회라고 ‘헬조선’이라고 폄하하는 무리들과 ‘흙수저 세대’라고 자학하며 스스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게 하는 우매한 지도자들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며, 더욱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를 청산하고 다시 한 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길 다 함께 기도합시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아이들이 놀다가 한쪽으로 치워놓은 퍼즐(조각그림)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았다. 뒤죽박죽이 된 퍼즐 조각들이 다 그것이 그것 같아서 가져다 맞추어보면 번번이 제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놀던 아이들이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맞추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맞추어놓고 보니 근사한 그림이 나오고, 그 조각조각들이 어떤 그림의 일부분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 그림이 조각나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각난 그림들은 ‘완성된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조각나 있어서 밑그림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삶도 똑같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밑그림을 그려주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뚜렷하고도 확실한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우리가 환난, 역경, 좌절과 낙

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밑그림은 확실하다. 그것은 곧 영생과 이 땅의 승리와 성공이다. 퍼즐의 조각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려울지라도 밑그림이 있기에 견디고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다시금 소망을 갖는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확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롬 4:19~21).

조각난 그림으로 좌절하지 말고 완성된 밑그림을 보고 인내하자! 잠시 잠깐의 좌절이나 낙망, 혹은 이탈된 신앙 과정 속에 있더라도 이제 깨닫고 다시 일어나자! 나를 향하신 섭리, ‘밑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

대충 살균제 ‘열일’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돌아가던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15년 동안을 감금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바로 그의 헛바닥, 즉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그를 15년 동안이나 가둬놓을 정도의 복수심과 증오를 만들 어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 의학 학술지에 따르면 ‘암’보다 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말’임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몇 해 전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암이란 사실을 통보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들은 후 첫 일주일 동안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12.6배나 증가했고,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도 5.6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살이나 심장마비 두 경우 모두 스스로 생명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인데, 암이 진행돼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암이다’라는 말에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암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는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강하게 일어

나고, 그 말이 계속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암 이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 혀와 입술의 말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약3:8~9).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성도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부정의 말을 뿌리 뽑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혀가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도록, 가볍게 던지는 말 한 마디에도 심사숙고(深思熟考)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열일 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는 ‘열심히 일하는 중’의 줄임말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보통 사용한다.

최근 진정한 ‘열일 중’이신 택시 기사님을 한 분 만났다. 업무가 늦게 끝나 야간에 택시를 탔다. 나도 나지만 이 기사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셔서 고된 하루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점잖은 말투와 승객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기사님은 고대 법대를 나와 은행에서 31년을 근무하며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셨는데, 현직에 있을 당시 본인 아래 은행 지점이 80여개가 있었고, 연봉 6억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하였다. 퇴직금 및 임원 일을 하며 회사에서 주식으로 받은 스톡옵션 금액까지 정리를 했더니 21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퇴직 후 창업이나 임대업 같은 것을 안 하고 운수 일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어서 선택했다고 하셨다. 퇴직하기 직전

한시적으로, 그룹에서 퇴직자들 가운데 배려차원으로 본인이 관리했던 점포 중 한 곳에서 2년을 책임만 지키고 있어도 역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설렁설렁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 퇴직 즉시 운수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다. 이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일도 회사 다닐 때처럼 최선을 다했더니 늘 신바람이 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택시로 운전 무사고 35개월을 채웠으므로 10일 후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다고 엄청 기뻐하셨다.

31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치열한 전투 끝에 본사 서열 10위 임원으로 승진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던 ‘열일’정신을 이어 퇴직 후 운수업으로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열일 중’이신 택시기사님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삶의 한자리까지 값어치는 ‘대충’이라는 기생충을 잡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도 내일도 ‘열일’합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할 수 있다’의 기적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다. 늦은 밤에도 더위는 사그라질 줄 몰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8월의 밤을 뒤척거리게 만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지구 반대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바로 그것이다. 22개 종목에 194명이 출전한(7월 4일 기준 발표)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다. 메달 획득의 유무를 떠나 매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진지한 눈빛과 땀방울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는 하였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경기는 다른 아닌 펜싱이었다. 경기 도중의 쉬는 시간, 감독의 조언을 들은 후, 땀을 닦으며 박상영은 혼잣말을 되뇌었다. 카메라에 클로즈업된 그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그래 할 수 있다.’며 스스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박상영은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해 금메달을 획득한다. 그가 중얼거린 ‘할 수 있다’는 말은 며칠간 지구 건너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

었다. 그래!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박상영이 금메달을 얻을 수 있게 한 그 말은 다른 아닌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이 항상 되뇌는 말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01)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할 수 있다’의 기적을 심비에 새기고 사는 요즘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의 기적은 리우의 박상영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얼마 전, 투고한 논문의 심사 결과가 좋지 못했다. ‘수정 후 재심사’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정 기간은 단 3일이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더위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수정 후 재심’은 ‘탈락’과 같은 말처럼 들렸다. 잠시 포기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권유로 ‘할 수 있다’를 되뇌며 연구실로 향했다. 간신히 얻은 휴가 일정을 고스란히 논문 수정에 반납하고, 밤늦도록 글을 수정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논문은 통과될 것이다.’라는 말을 백번쯤 되뇌 후에야 수정이 끝났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선생님 논문에 대한 재심 결과 최종 ‘게재’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꺾지 못한다. 새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리우의 박상영이 그랬고,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거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의 기적을 행하며 사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보답의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디지털 혁명 덕분에, 스마트폰 터치 하나면 각종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짜로 좋은 메시지를 받기도 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끼리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대다. 아무리 훌륭한 구약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완벽하게 성경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성경 66권 완본과 그에 관련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 서너 끼니 가격만 지불하면, 내 집으로 그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풍년의 시대요, 별다른 수고 없이 거저먹을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옛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보다 훨씬 못한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선지자들은 천둥이 치고 벼락을 맞는 듯 생생한 성령을 체험했고, 우리들은 간가만가하는 성령만을 체험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답은 처음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의 강도가 아니다. 핵심은 바로 지속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나 대기 중이시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선지자 교육을 받았든지 전공이 무엇이든지, 학벌, 문벌, 경제력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과정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보이라고 도전하시기도 한다. 입으로만 하는 싸구려 진정성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이라고도 하신다. 그러나 이미 이긴 전쟁이며, 준비 없이 바로 전투에 투입시키지 않으시기에 걱정 없다. 이미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은 각자 분량에 맞게 집중해서 한결음씩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그럼 어느 순간 옛 선지자들이 도달했던 영성의 단계를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거저 받는 축복의 시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보답의 시대이므로...

박소향

:: Global Study ::

☞ 불행한 사람은 부와 행복의 커트라인 때문에 불행하다.

Unhappy people are that way because they have put a qualifying line to happiness and have put themselves under it.

不幸的人是因为定下了富与幸福的分界线, 所以是不幸的。

☞ 행복의 커트라인을 제거하라.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Remove the qualification of happiness, then you'll become happy!

要解除幸福的分界线, 那么你也会变幸福的。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아래 10개의 설문은 도파민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2. 카페인이 들어가야 잠이 깬다.
3. 흥미 있는 일이라도 깔끔히 마무리하기가 힘들다.
4. 단 것이 당긴다.
5. 술이나 다른 것에 중독된 적이 있다.
6. 늘 체중감량 문제를 안고 산다.
7.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8. 우울하거나 많이 지쳐있다.
9.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항상 찾는다.
10.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위의 내용 중에서 4~6개가 해당된다면 중증도의 도파민 결핍을 의미하며, 7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도파민이 심하게 결핍된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화학물질중 도파민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며, 충분할 때 적극적이고, 집중을 잘하며, 지적인 활동에 집중이 잘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지고, 폭력적이거나 정신병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중독증이 발생합니다. 마약, 술, 담배, 탄수화물과 같은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 반복적으로 술이나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안정을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는 64%의 인구가 과체중 아니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상체중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비만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증상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로 파킨슨병도 도파민 결핍으로 뇌가 오작동을 하게 되어 경직, 떨림, 느림, 자세 유지의 어려움과 인지력의 감퇴가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음식입니다. 페닐알라민과 티로신은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으로서 닭, 오리, 돼지고기, 계란, 생선, 두부, 치즈, 조개, 대두, 호두, 아몬드, 죽순, 참깨, 플레인 요구르트에 등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입니다. 영양제D,L-페닐알라닌, 바이오텐린, 엽산, 비타민B6,

비타민C등입니다.

셋째, 생활습관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생활습관이 위험하며, 규칙적인 휴식과 회복으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중 심호흡은 몸을 진정시키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데, 편안한 곳에서 심호흡을 천천히 깊이 다섯 번 합니다. 그 후에 한쪽 코를 막고 교대로 심호흡을 다섯 번씩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주 3회가 좋습니다.

넷째, 피해야할 환경입니다. 오래된 페인트, 터진 전지, 납땀, 담배연기는 뇌의 도파민을 감소시키니, 가능한 떨어지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도파민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생약처방으로는 계지탕, 마황탕, 귀비탕 등이 있습니다. 계피, 황기, 인삼, 백출과 같은 약초들은 오장육부를 조절하여 뇌의 도파민을 형성시켜주며 심한 도파민 부족에 활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도파민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작은 실천으로 도파민 건강을 유지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